국토부, '보잉 737-800' 전수점검…제주항공 안전감독

정비 규정 준수 여부 확인…美NTSB·보잉사 참가해 조사

"활주로 $\frac{1}{3}$ 지점 착륙…콘크리트 둔덕 다른 공항에도 있어"

30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별취재반=김애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 우리나라에 101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먼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기록 등에 따라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B737-800은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천대가 넘게 팔린 기종으로 많이 팔린 만큼 기체 결함이나 사고 소식도 많이 전해진다.

국토부는 2019년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를 보유 중인 국내 항공사에 동체 구조부 균열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총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비행을 중지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국적항공사 5곳을 대상으로 보잉 737-맥스8 기종 기체 14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사실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사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참여하고 기체 제작사인 보잉과 미국·프랑스가 합작투자한 엔진 제작사인 CFMI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NTSB는 이번 참사에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이고, 보잉사도 참석 회신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기의 동체착륙 지점을 묻는 말에 "대략 활주로(2천800m) 일부 방향으로 봤을 때 3분의1 지점으로 추정된다"며 "활주로 시작점으로부터 1천200m 지점에 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고, 이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조종사, 사고 4분전 조류충돌 언급 '메이데이'"

"복항 과정 관제사와 소통 끊겨…블랙박스 분석해야 착륙지점 파악"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언급하며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고기 조종사가 오전 8시59분께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고기는 이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국토부는 "복항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관제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착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동체 착륙 지점에 대해 "대략 전체 활주로의 3분의1 지점으로 추정된다"며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이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주로상의 접촉 흔적을 보고 착륙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장에 잔해가 많이 퍼져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동체 착륙 중 엔진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아직 추정일 뿐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없다"며 "블랙박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 2명과 기체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 2명이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조사 참여를 협의 중인 기체 엔진 제작사 CFMI 측은 아직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합동 조사는 30일 밤부터 시작되며, 현재 일부 훼손된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피해 키웠나

2m 높이…콘크리트 돌출구조 적절성 논란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와 이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무안국제공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와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돼 있다. 콘크리트 둔덕은 2m 높이로 설치됐다.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모든 구조물은 4m 정도 높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측은 지난해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며 해당 콘크리트 둔덕을 세웠고, 활주로 끝단 지면이 기울어져서 둔덕으로 수평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피해가 커지면서 둔덕이 지상으로 2m가량 돌출된 것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본 외국 항공 전문가 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항공기와 로컬라이저·둔덕 간 충돌로 인명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및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브리핑 중 로컬라이저 위치와 관련,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재질과 메뉴얼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접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